

이슈 브리핑

❶ 이슈 요약

- ◆ 중국 시장에서 저가형 신에너지차(NEV) 판매가 증가하며 '25.1~9월 EV 평균 판매 가격 14.2만 위안 기록
- ◆ 중국 광저우차(GAC), 위탁생산 기업 Magna Steyr의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유럽 시장용 전기 SUV 양산
- ◆ 대만 Foxconn, AI에 연간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전기차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보류
- ◆ EU, 유럽 횡단 교통망(TEN-T)의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6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
- ◆ 영국 정부,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 추진 예정
- ◆ EU '25.1~10월 신차 등록이 전년 比 1.4% 증가한 가운데, 전동화차 수요는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수요는 감소

◆ 중국 시장에서 15만 위안 이하 저가형 BEV·PHEV 판매 증가

- 중국의 '25.1~9월 신에너지차(NEV) 판매 중 10~15만 위안 (2,060~3,090만원) 가격대의 차량이 235만 대에 달해, 저가형 BEV·PHE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Nikkei가 분석
- 같은 기간 중국의 EV 평균 판매 가격은 14.2만 위안(2,940만원)으로 전년 동기비 13% 하락, 내연기관차(-3%) 대비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남
- Nikkei는 중국 내 과도한 EV 가격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잉여 물량의 해외 유입으로 非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가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

Nikkei Asia('25.11.22.) <https://bit.ly/4ohwALL>

◆ GAC, Manga Steyr의 오스트리아 공장에 EV 생산 위탁

- 완성차 위탁생산 기업인 Magna Steyr는 오스트리아 Graz 공장에서 중국 광저우차(GAC)의 유럽 시장용 전기 SUV 양산을 개시한다고 발표
- 이는 중국 EV 기업이 EU 현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생산 EV에 부과한 관세를 회피하고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됨
- * 또 다른 중국 기업인 Xpeng도 '25.9월부터 Graz 공장에서 EV를 생산 중
- 한편 그간 유럽 내 입지가 약했던 GAC는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판매·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

Gasgoo('25.11.21.) <https://bit.ly/48cxVNX> electrive('25.11.21.) <https://bit.ly/44l9IUB>

◆ Foxconn, AI에 연간 최대 30억 달러 투자 예정

-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기업인 Foxconn은 AI 인프라·기술에 연간 20~30억 달러를 투자할* 예정임을 공개
- * 해당 금액은 Foxconn의 연간 자본지출 약 50억 달러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
- 한편 동사는 수년 전부터 EV 위탁생산 사업도 추진해왔으나,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EV 투자 확대를 보류할 계획
- 관련하여 Foxconn 회장은 중국 EV 시장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, 조만간 수익성 있는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통합이 예상된다고 언급

Reuters('25.11.21.) <https://bit.ly/3JZYvIA> SRN News('25.11.20.) <https://bit.ly/4rcNSMM>

◆ EU, 유럽 횡단 교통망의 탈탄소화 인프라에 6억 유로 투자

- EU 집행위는 유럽 횡단 교통망(TEN-T)* 탈탄소화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하여 70개 프로젝트**를 선정, 약 6억 유로(1조 원) 투자 계획

* 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의 약어로, EU 회원국 전역의 도로·철도·내륙수로·공항·터미널 등 교통 인프라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

** TEN-T 중심으로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에 EU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

- 자동차·도로 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용 고출력 충전소 구축,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의 계획이 포함되었으며, 특히 중대형 상용차(HDV) 충전을 위한 메가와트급 충전 시스템(MCS)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

EU Commision('25.11.13.) <https://bit.ly/49w3nt0> EU Commision('25.11.20.) <https://bit.ly/4od5lCg>

◆ 영국, EV 전환을 위한 15억 파운드 지원 패키지 추진 예정

- 영국 정부는 EV 전환 가속화를 위해 15억 파운드(2.9조 원)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예산안에 포함, EV 구매 보조금 지급(13억 파운드) 및 충전 인프라 확대(2억 파운드)에 활용할 예정

* 영국 정부는 '25.7월 이후 EV에 최대 3,750파운드 구매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3.5만 명 이상 운전자의 EV 전환을 유도하였다고 평가

- 이번 조치는 '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(Net-zero) 달성의 일환이자, '30년까지의 단계적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

Reuters('25.11.23.) <https://bit.ly/4ojSJcl> ET Auto('25.11.23.) <https://bit.ly/48hXwFk>

◆ EU 신차 등록 4개월 연속 증가세, 전동화차 비중 증가

-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(ACEA)에 의하면 EU의 '25.1~10월 누적 신차 등록은 897만 대(전년동기비 +1.4%)로,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
- '25.1~10월 등록된 전동화차 점유율은 ^(HEV)34.6%(전년동기비 +4.2%), ^(PHEV)9.1%(+2.1%), ^(BEV)16.4%(+3.2%)로 그 비중이 증가세
- 반면 동 기간 등록된 내연차 점유율은 ^(가솔린)27.4%(전년동기비 -6.6%), ^(디젤)9.2%(-3.1%)로 수요 감소세가 뚜렷

ACEA('25.11.25.) <https://bit.ly/3XLwpO6> Autovista24('25.11.25.) <https://bit.ly/4ioahmn>